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초대 회장
김 채 옥

우리 현장과학교육학회는 “세계 물리의 해”인 2005년에 짝을 텨었다. 2005년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유네스코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5년을 “세계 물리의 해”로 지정했다. 전 세계의 물리인들이 상대성 이론 발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으며, 한국물리학회도 대대적인 축제 준비에 박차를 다했다. 다양한 행사 중에서 “청소년 물리 홍보대사”는 물리 확산을 위해 각 나라의 물리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국제 행사로, 각 나라의 물리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 학생이 모여 친교를 하고 노벨상 수상자를 만나는 행사였다. 물리학회에서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재미있는 물리를 확산하고, 초중고 학생의 물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만에서 열릴 청소년 물리 홍보대사 행사에 파견할 초중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계, 일반인, 초중고 학생이 같이 참여하여 “물리와 함께 여는 밝은 미래”라는 제목 아래 “물리 현상 테스트와 과제물 발표를 위한 물리 페스티벌”을 이화여대 김성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2005년 8월 17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개최하였다. 물리 확산 행사를 계속하고 청소년 물리 홍보대사 성과를 전파하기 위해 2006년 9월 9일 전 해의 물리 페스티벌에서 선발되었던 초중고 학생 60명을 다시 이화여대에 초청하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교원대학교 김중복 교수가 초중고 교사와 학생의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무대가 별로 없으니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과학 수업 내용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모임을 만들고 연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김 교수의 제안대로 과학 수업 내용과 관련된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과학교육학회가 있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별로 학회가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같이 연구하고 가르쳐온 수업 내용을 구두로나 인쇄된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학회는 없으며, 이런 학회의 부재는 미래의 과학자인 초중고 학생의 현장 과학 지도뿐 아니라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 논문 작성이 초중고 교사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활동이 아닌 생소한 활동이므로 학술 논문 작성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학 수업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이 없다면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힘들여 연구한 교과내용, 정성을 다해 연구한 개발한 교재와 교수법을 다른 교사와 학생들에게 전수할 기회가 막힌다. 과학 대중화와 과학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가의 과학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초중고 교사들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런 활동이 보편화된 외국에 비하여 한국인들의 생활의 과학화는 매우 뒤쳐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었으나 지금부터라도 초중고 교사와 대학 교수가 같이 모임을 만들어,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교사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과 논문 발표와 활자화를 위해 제공하되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 선배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현장과학교육학회를 만드는 일에 착수하게 되었다.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학회는 아직 만족스런 정도는 아니나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다. 지금까지 이룩한 워십의 성공적 안착, 학술지의 발행, 학회를 운영할 인적 자원과 헌신적 노력, 교사와 교수들의 소통, 어느 정도의 회원의 확보 등으로 미루어, 앞으로 우리 학회가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을 충분히 쌓았다고 자신한다.

밝혀 두고 싶다면, 이 학회는 미국의 "물리 교사 모임"에 버금가는 학회로 발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학회에는 있는 힘을 다 하여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차기 회장을 맡아 학회를 이어갈 김성원 교수, 강력한 추진력으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김중복 교수, 여름마다 총회 기획에 여념이 없는 전상학 교수, 학회를 홍보하느라 고생하고 계신 형식 교수, 현장과학교육 학술지 때문에 주름이 늘어난 전동렬 교수와 홍명수 선생님, 뒤에서 도와준 홍훈기 교수,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문종성 선생님, 이길재 교수님, 최상규 교장선생님, 김정대 교수, 김종원 선생님, 이복희, 임혁, 황진수, 박정웅, 미국에 가있는 이정숙 선생님,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채영복 전 회장을 비롯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그 밖에도 일일이 이름을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현장과학교육학회를 후원해 주지 않았다면 이만한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임 회장이 되어서도 현장과학교육학회에 마음을 두고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들께 그간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